

‘신인왕’ 소형준 · 이민호 · 허윤동 3파전? 정해영도 있다

올 시즌 신인왕 레이스 더욱 풍성 · 불거리 많아
정해영 “성적 좋지만 불펜 투수 뛰고있어 불리”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신인왕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등장한 투수들의 호투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선두주자는 KT 위즈 소형준(19)이었다. 유신고등학교 출신으로 청소년대표팀 에이스였던 소형준은 신인 투수로는 유일하게 개막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돼 이름을 알렸다. 소형준의 기세는 무서웠다. 첫 등판에 이어 두 번째 등판에서도 승리를 챙기면서 김진우(은퇴), 류현진(토론토)에 이어 고졸 신인으로 역대 3번째로 데뷔전 이래 2연속 선발승 기록을 세웠다. KT의 연패 스토피 역할까지 해내며 ‘대형준’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2연승 뒤로는 주춤하기도 했지만 소형준은 첫 5경기에서 4승(1패)을 수확하며 신인왕 레이스에서 독주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4경기에서 내리 패전을 안으며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소형준이 체력적으로 지쳤다고 판단, 4연패 뒤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해 휴식기를

제공했다. 충분히 쉬 소형준은 지난 11일 삼성 라이온즈전을 통해 복귀, 6이닝 3실점(2자책)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하면서 부활을 알렸다. 초반 강력한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소형준의 성적은 10경기 4승5패 평균자책점 6.23(52이닝 36자책)으로 평범한 수준이다. 10승을 채우고 평균자책점을 3~4점대로 끌어내린다면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신인왕을 장담할 수 없다. 소형준이 부침을 겪는 사이 LG 트윈스 이민호(19)가 치고 올라왔다. 이민호는 팀의 철저한 관리 속에 열혈마다 마운드에 오르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8경기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 1.80(40이닝 8자책)을 기록 중인 성적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다. 휘문고등학교 출신 이민호도 소형준과 마찬가지로 개막전 엔트리에 승선했다. 하지만 선발투수는 아니었다. 이민호에게 선발 기회가 주어질 것은 불펜 등판 2차례를 마친 뒤인 5월21일 삼성전. 이민호는 5%이닝 무실점 승리로 완벽한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그 뒤로 이민호는 정찬현과 번갈아 5선발 역할을 맡으며 열혈에 한 번씩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휴식 기간이 충분해서인지 이민호는 등판 때마다 150km에 육박하는 묵직한 직구,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호투 행진 중이다. 불펜을 남발하는 문제만 고친다면 신인왕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삼성 허윤동(19)도 조용히 신인왕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퓨처스 리그에서 때를 기다리던 허윤동은 셋 중 가장 늦은 5월28일, 롯데 자이언츠전을 통해 1군 무대를 처음 밟았다. 팀의 구멍만 선발진을 메우기 위해서였다. 허윤동도 유신고에서 원투펀치를 이뤘던 친구 소형준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 고졸 신인으로 역대 4번째로 ‘데뷔전 이래 2연속 선발승’ 기록을 세운 것. 허윤동은 5경기 연속 5이닝을 소화하며 선발투수로서 제 몫을 해내다가 지난 10일 KT전에서 처음으로 10이닝 3실점(2자책)으로 조기경관했다. 허윤동은 6경기에서 2승1패 평균자책점 4.15(26이닝 12자책)를 기록 중이다. 신인왕으로선 무난한 성적이지만 이민호에 비해 인상적이지 않고 소형준과 비교해 경기 수와 이닝 수에서 뒤진 점. 신인왕 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KIA 타이거즈 정해영



고졸신인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T 위즈 소형준(왼쪽부터) LG 트윈스 이민호 삼성 라이온즈 허윤동.

(19)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해영은 정희열 전 KIA 수석코치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선수. 정해영-정희열 부자는 KBO리그 최초 ‘동일 구단 1차지명’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희열 전 코치는 1990년, 정해영은 2020년으로 30년 차이를 두고 KIA의 1차지명을 받았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정해영은 지난달 25일 처음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는 지난 1일 한화 이글스전, 팀이 1-3으로 뒤지던 9회초 구

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구원승을 따냈다. 선배들이 아들도 잘 알려준 선수. 정해영은 정희열 부자는 KBO리그 최초 ‘동일 구단 1차지명’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희열 전 코치는 1990년, 정해영은 2020년으로 30년 차이를 두고 KIA의 1차지명을 받았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정해영은 지난달 25일 처음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는 지난 1일 한화 이글스전, 팀이 1-3으로 뒤지던 9회초 구

원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구원승을 따냈다. 선배들이 아들도 잘 알려준 선수. 정해영은 정희열 부자는 KBO리그 최초 ‘동일 구단 1차지명’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희열 전 코치는 1990년, 정해영은 2020년으로 30년 차이를 두고 KIA의 1차지명을 받았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한 정해영은 지난달 25일 처음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는 지난 1일 한화 이글스전, 팀이 1-3으로 뒤지던 9회초 구

여자 피겨 간판 유영 “ISU 신인상 후보만으로 좋은 자극”

현재 세 시즌 프로그램 준비 집중



한국 여자 피겨의 ‘간판’ 유영(16·수리고)이 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케이트링 어워즈에서 신인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큰 자극제가 됐다. 유영은 소감을 전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는 유영은 다가올 시즌을 위해 답글질 중이다. 유영은 지난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ISU 스케이트링 어워즈 신인상 부문에서 최종 3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신인상은 알레나 코스타나(17·러시아)에게 돌아갔다.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스에서 훈련 중인 유영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시상식에 참가했다. 유영은 올 초 열린 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성공적인 시니어 무대 입성을 알렸다. 유영은 소속사인 대흥기획을 통해 “신인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 놀라긴 했지만 사실 수상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 경험이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시니어 무대의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게 될 세계적 선수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훈련에 더욱 열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이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현재 유영은 매일 오전 7시 메인 훈련장인 ‘윌로라도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아레나’에서의 온아이스 훈련을 시작으로 저녁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연성 운동 등 빽빽한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현재 세 시즌 프로그램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유영은 지난 시즌 성공적으로 선보인 트리플 악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쿼드러플 점프에 대한 감을 익혀 나가고 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영은 일상 생활은 물론 훈련 중에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다가올 시즌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영은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다”면서 “올 시즌 목표했던 클린 연기를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현경 ‘빛속 서든데스’ KLPGA 부산오픈 우승

올해 가장 먼저 다승 거둬

박현경(20·한국토지신탁)이 폭우 속에 펼쳐진 연장 서든데스 승부 끝에 동갑내기 친구 임희정(20·한화큐셀)을 제치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총상금10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박현경은 13일 부산 기장군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파72·6491야드)에서 열린 대회 연장 스트로크 경기에서 서든데스 끝에 임희정을 누르고 정상에 등극했다. 박현경은 이번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연장 3개 홀 무승부로 서든데스 경기가 펼쳐졌고 2번째 홀 만에 박현경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파에 그친 임희정을 따돌렸다. 올해 열린 KLPGA 챔피언십에서 통산 첫 승을 기록했던 박현경은 이로써 올 시즌 가장 먼저 2승째를 수확했다. 박현경은 특히 ‘비’와 인연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박현경은 2라운드를 마친 뒤 ‘비가 오는 날에 좋은 기억이 있다’며 “2017년 아마추어 시절 ‘제24회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와 올해 열렸던 ‘제42회 KLPGA 챔피언십’ 두 대회 모두



프로골퍼 박현경이 11일 부산 스톤게이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이에스동서 부산오픈 1라운드 11번홀에서 티샷을 치고 있다. (KLPGA 제공)

2라운드에 비가 왔는데, 모두 우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회는 많은 비로 인해 일정이 꼬였다. 13일 폭우로 예정됐던 대회 3라운드 결국 취소됐다.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13언더파 131타)였던 임희정과 박현경이 오후 12시 15분부터 3개홀(16, 17, 18번홀)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폭우 속에서 펼쳐진 연장 경기에서 둘은 명승부를 펼쳤다. 16번홀(파4), 17번홀(파5)에서 나란히 파 세이브를 기록했고, 18번홀(파4)에서도 임희정과 박현경이 각각 파를 적어내며 경기는 서

든데스로 이어졌다. 18번홀(파4)에서 열린 서든데스에서도 쉽게 승부는 나지 않았다. 첫번째 서든데스에서 박현경이 먼저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자, 임희정도 장거리 버디 퍼트를 기록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결국 서든데스 2번째 만에 희비가 갈렸다. 박현경이 2번째 샷을 핀 근처에 붙이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임희정의 샷은 길었다. 곧바로 이어진 임희정의 버디 퍼트는 빛나갔고, 박현경이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제8회 강진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 성황리에 열려

강진군 17개 분회 27개팀 230여 명 참가

강진군은 최근 제8회 강진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동호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수들의 체온 체크 및 방역물품 착용, 전원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치러졌다. 경기는 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에서 진행됐으며 관내 27개팀 230여 명의 선수 및 심판이 참

서 수상했다. 이승욱 군수는 “참여르신들 모두 즐거운 경기가 되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건강한 노년이 되시길 바란다. 게이트볼 보다 운동량이 조금 더 많은 게이트볼이든 강진군은 아직 파크골프장이 없지만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모리카와 ‘워크데이 캐리티 오픈’ 우승

PGA투어 통산 2번째

폴린 모리카와(미국)가 연장에서 저스틴 토마스(미국)를 제치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워크데이 캐리티 오픈(총상금 620만달러) 정상에 섰다. 모리카와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745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모리카와는 4라운드까지 19언더

파 269타로 토마스와 동타를 기록, 연장전에 돌입했다. 3차 연장에서 모리카와는 파를 기록하며 토마스를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모리카와는 2019년 PGA 투어에 데뷔, 그해 7월 베라쿠다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PGA투어 통산 2번째다. 1·2라운드에서 선두를 지키다 3라운드에서 3위로 밀렸던 모리카와는 4라운드 초반부터 매섭게 몰아쳤다. 2번홀(파4)과 4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은 뒤 5번홀(파5)에서는 2번째샷을 홀컵 약 0.94m에

붙이며 이글에 성공했다. 모리카와는 후반들어 12번홀(파3) 버디를 잡았지만 13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다. 그러나 14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했고 17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쳤다. 18번홀(파4)에서 진행된 1차 연장. 모리카와는 약 7.3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켰지만 토마스 역시 버디를 잡았다. 2차 연장에서도 두 선수는 나란히 파를 기록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3차 연장은 10번홀(파4)에서 진행됐다. 모리카와는 2퍼트를 범했지만 파를 기록하면서 토마스를 제치고 생애 2번째 PGA투어 우승에 성공했다.